

잠언 개관

1. 개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משל), 즉 비유, 속담, 교훈, 짧은 격언이라는 뜻을 지닌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근면과 게으름, 정직과 거짓 등 삶의 실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훈을 주는 **생활 신학의 보화 창고**입니다.

2. 저작 연대

- 솔로몬(기원전 970-931 년경)의 지혜문학이 중심이며, 히스기야(기원전 700 년경) 시대에 추가적으로 편집되었고 최종적인 정리는 포로기 이후(기원전 5 세기경)로 보기도 합니다.
-

3. 저자

- 주요 저자: 솔로몬 (1:1, 10:1, 25:1 등 명시)
 - 그 외에도:
 - 아굴 (30 장)
 -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 장) 등의 지혜 전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후대의 편집자들(레위인 혹은 지혜자들)이 이를 수집, 배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지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

4. 기록 목적

-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1:2)

잠언은 단순한 격언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즉,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책입니다.

5. 단락 구분

구분	장
1-9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 훈계 (서론 및 인생 전체의 지혜 구조 제시)
10-22:16	솔로몬의 잠언 (이중구조 격언: 대조법 중심)
22:17-24:34	지혜자들의 말씀 (이집트 지혜문학과 유사한 부분 있음)
25-29장	히스기야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인간의 무지와 겸손, 절제 강조)
31장	르무엘의 잠언 (어머니의 훈계와 '현숙한 여인'의 찬가)

6. 중심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7)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니 그것을 지키라.” (4:23)

잠언의 핵심은 지혜란 단순한 현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 인격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 그 지혜는 말과 행동, 재정, 관계,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 궁극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가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

7. 신학적 이슈

① 하나님 없는 '지혜'는 없다

- 잠언은 철저히 **신정 중심의 지혜문학**입니다. → 지혜는 단지 삶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룩한 통찰**입니다.

② 행위-결과 원리의 신학

-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지혜문학 특유의 행위 결과 구조**가 강조됩니다.
- 하지만 욕기·전도서와 균형을 이뤄, 이 원리가 반드시 현실에서 즉각 성취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체 구약 지혜 신학의 일환입니다.

③ 일상의 신앙화

- 잠언은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집, 직장, 거리, 재판장, 시장 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 이는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잠언 해석

① 경외 신학과 언약 신학의 연결

- “여호와를 경외함”은 **언약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 잠언은 신자에게 **신앙의 열매로서의 실천적 거룩**을 요구합니다.

② 일상의 성화와 소명 신학

- 잠언은 목사, 선지자뿐 아니라 **장사하는 자, 부모, 청년, 지도자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 **모든 직업과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개혁주의 만민 제사장관과 소명론과 연결됩니다.

③ 은혜의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 잠언은 개개인의 윤리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의롭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 이는 개혁주의 교회론의 윤리적 책임감과도 연결됩니다.

④ 그리스도 중심 해석

- 고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잠언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고 보았습니다.
-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 즉, 잠언의 의인, 지혜자, 의로운 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적 예시입니다.